



닭은꼴 대혈투 “양보는 당신몫”

■ 포르투갈-프랑스 내일 새벽 격돌

‘아트사커’ 프랑스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무관의 제왕’ 포르투갈을 상대로 뮌헨 월드컵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포르투갈-프랑스 ‘악연의 역사’

포르투갈은 유독 프랑스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 프랑스는 그동안 포르투갈과 21번을 싸워 15승1무5패(40득24실)로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쥐’가 된 셈이다. 프랑스가 포르투갈에 마지막으로 패했던 것도 무려 31년 전인 지난 1975년이었던 아니라 최근 7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포르투갈은 아직도 지난 유로2000에서 프랑스와 맞붙은 준결승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준결승전 전반 19분 누누 고메스의 기막힌 왼발 선제골로 결승 문턱에 가는 듯 했던 포르투갈은 후반 6분 프랑스의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에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연장승부에 들어갔다.

‘34세 동갑’ 피구-지단 축구인생 마지막 승부

연장 후반 종료 6분을 남기고 문전에서 핸들링 반칙을 범해 프랑스에 페널티킥을 내준 포르투갈은 지단에게 페널티킥 골든골을 허용하면서 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쓰린 기억을 간직한 포르투갈은 6년만에 재현된 ‘닭은꼴’ 상황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뿐이다.

◇4-5-1 VS 4-5-1 ‘닭은꼴 전술’

프랑스는 이번 독일월드컵 조별리그 토고전에서 단 한번 투톱을 쓴 뒤 계속해서 앙리의 원톱을 이용한 ‘4-5-1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포백라인에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세우고 지네딘 지단이 중앙 조율사로 나서서 ‘4-2-3-1 전술’이다.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자국 언론으로부터 쏟아진 비판을 묵묵히 참아낸 ‘덕장(德將)’ 레몽 도메네크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을 믿었고, 선수들은 스페인전(16강) 3-1 역전승에 이어 8강전에서 브라질을 1-0으로 꺾고 ‘아트사커’의 부활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강점은 수비형 미드필더 클로드 마켈렐레와 파트리크 비에라의 든든한 ‘버팀목’ 수비와 함께 갈수록 예리함과 연륜이 묻어나오는 지단의 중원 조율이다. 특히 3골을 뽑아낸 앙리의 골 결정력은 탁월하기만 하다. 프랑스는 5경기를 치르면서 단 7골을 터뜨리고 2골만 내주는 효과적인 공수조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포르투갈은 5경기를 치르면서 무패행진으로 6골2실점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강점이다. 특히 최근 A매치 17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1990년대 포르투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금세대’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장 루이스 피구만 남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신세대들의 약진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특히 명장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 감독의 용병술도 이번 4강전의 불거리다. 스콜라리 감독은 파울레타를 정점으로 좌우에서 발빠른 호나우두와 피구가 측면 공격을 맡는다. 데쿠의 중원조율의 뒤를 받쳐 코스타나와 마니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다. 따지고 보면 프랑스의 전술과 크게 다를게 없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닭은꼴 혈전’이 벌어질 공산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네딘 지단

- 나이 : 34세
- 소속 : R·마드리드
- A매치 : 29골

루이스 피구

- 나이 : 34세
- 소속 : 인터밀란
- A매치 : 31골



“K리그서 새 출발하자”

태극전사들 팀 복귀

오늘 현대형 형제대결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국내 축구팬들의 아쉬움은 그 어느 때보다 깊기만 하다.

하지만 실망은 아직 이르다. 멀게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포함해 가깝게는 5일 펼쳐지는 K-리그 컵 대회를 비롯해 오는 8월 대만과 치르는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전 등 많은 이벤트들이 축구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2006 독일월드컵축구 기간 중단됐던 K-리그 ‘삼성 하우젠컵 2006’이 5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현대(家) 형제 대결’로 재개된다. 지난 달 6일 컵대회 8라운드를 치른 뒤 한달만이다.

이날 경기는 울산과 전북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느냐 미뤄졌던 것이라 한 게임만 따로 열리고 K-리그 14개팀이 모두 참가하는 컵대회는 월드컵이

끝난 다음인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는 15일 인천과 부산을 각각 홈으로 불러들여 잠시 쉬었던 골 감각을 조절한다.

이와함께 2006년 독일월드컵을 마친 해외파 및 국내파 태극전사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에 맞춰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들어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론토)는 이번달 중순께 출국을 앞두고 월드컵의 긴장에서 벗어나 가족과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적 준비 중인 안정환(위스부르크)과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은 말 그대로 ‘정중동(靜中動)’의 상태. 독일 현지에서 서해부 부상 치료를 위한 간단한 수술을 받은 차두리(미안츠)는 회복훈련을 통해 수비수로서 제2의 축구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J-리그 조재진(시미즈)과 김진규(이와타)는 지난 2일 일본으로 출국해 후기리그에 대비한 팀 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활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이동국(포함)은 빠르면 10월쯤 K-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축구팬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월 한·일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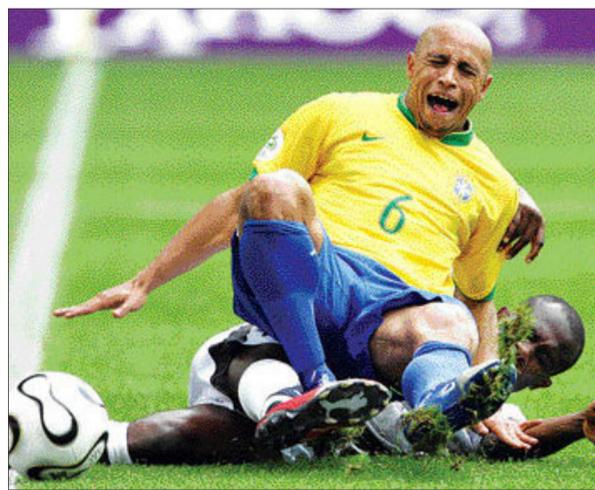
‘베어벡호’ 신고

필 베퍼벡(50)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이후 첫 한일전을 치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이영무 기술위원장은 4일 “오는 12월에 열리는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11월 중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며 “그동안 일본에서 경기를 치르자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전은 성인 대표팀이 아닌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23세 이하 대표팀간 맞대결로 펼쳐진다.

하지만 베퍼벡 감독이 아시안컵은 물론 23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사령탑까지 모두 맡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01년 대표팀 수석 코치로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한일전의 뜨거운 승부 열기를 맛보게 됐다.

이 위원장은 “당초 11월15일에 한일전을 치르기로 했지만 이날 아시안컵 축구대회 이란 원정경기 날짜와 겹쳐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확실한 날짜를 정하기 어렵지만 한일전을 치른다는 계획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카를로스·네드베드·나카타 등

대표팀 옷 벗는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축구 슈퍼스타들이 2006독일월드컵을 끝으로 졸졸이 대표팀 유니폼을 벗는다.

스포츠 티커는 4일 “UFO 프리키’ 명

성을 떨친 브라질의 왼쪽 풀백 호베르투 카를로스(33·레알 마드리드·사진)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년간 ‘카나리아 군단’의 부동의 왼쪽

풀백으로 활동했던 그는 8강전인 프랑스전이 끝난 뒤 “이제 대표팀과 헤어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카를로스는 브라질 특유의 오버래핑이 뛰어난 수비수로 특히 대표팀 같은 왼발 선수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브라질의 세트플레이 전담키커였던 그는 파괴력 넘친 왼발 슈터로 A매치 통산 132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했다.

카를로스 외에도 이번 월드컵을 고별 무대로 장식한 스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체코의 천재적인 미드필더 파벨 네드베드(34·유벤투스)도 조별리그 탈락 직후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고, 미국의 주장 완장을 무려 13년간 찼던 클라우디오 레이나(33·맨체스터시티)도 대표팀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나카타 히데토시(29·볼턴 원더러스)는 지난 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역은퇴를 전격 선언해 충격을 던져줬다.

이밖에 이미 한차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가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복귀했던 ‘중원의 사령관’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과 수비수 윌리엄 튀랑(34·유벤투스)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레블레’ 유니폼을 벗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